

AUTHOR 신복윤 (Bock Eyun Shin)

TITLE 칼빈 신학에 있어서의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3) (The Knowledge of God the  
Creator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3))

IN 신학정론(Journal of Reformed Theology)  
vol.9 no.1 (July, 1991):120-140

## 칼빈 神學에 있어서의 創造主 하나님에 관한 知識(3)

신 복 윤  
〈교수·조직신학〉

### III. 聖經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지식

하나님의 自然 啓示는 인간의 부패 때문에 건전한 하나님 지식을 효과적으로 산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역에 대한 충분한 하나님 지식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계시 사역에 대한 주장과 확인에서 칼빈의 논의는 그 중심점에 도달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칼빈의 자연계시에 대한 전체 논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역을 논하는데 길을 열어주는 준비단계였다. 하나님은 그 초자연적 사역을 통하여 부패한 하나님 개념을 갖고 있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응하신다. 이 사역은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일을 필요로 한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 啓示는 自然에서 주어진 계시보다 명백하고 충분한 계시로 인간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둘째로 인간의 어두어진 마음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照明되어야 한다. 다시 말로하면 필요한 것은 초자연적 특별계시와 초자연적 특별 조명이다.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이 두가지 사역을 확인하기 위해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 1권 6장으로부터 9장까지에서 이를 논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가 神的은혜의 특별 역사라는 것, 즉 자기 백성으로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지식을 전달하는 특별역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역시 주목할만한 것은, 처음부터 칼빈은 이 초자연적 계시를 聖經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의 과제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一般啓示를 보충하며 그것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성경에서 본다는 것,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無能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특별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 A. 聖經의 權威

사실상 인간이 성경 없이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소 갖을 수 있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아무도 무지를 구실로 삼아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神的威嚴을 어느 정도나마 알 수 있는 이해력을 각자에게 심어주셨다.”<sup>1)</sup>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은 인간의 의식속에서 질식되었기 때문에 성숙한 지식으로 열매를 맺게 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창조와 세계의 계속적인 통치 등 자연의 증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지식은 경시되거나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인간은 스스로가 이러한 상태를 자취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다.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보다 좋은 도움”<sup>2)</sup>을 마련하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 도움은 말씀의 빛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계시와 행동이다. 하나님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의 사역에서,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밖의 족장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1) *Inst.*, I. 3. 1(이것은 기독교강요 제1권 제3장 1절을 의미한다). OS III. 37. 18-19(이것은 *Calvini Opera Selecta* 제3권 37페이지 18-19행을 의미한다)

2) *Inst.*, I. 6. 1. OS III. 60. 15-17.

창조주요 구속주로 알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비록 성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고, 인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할찌라도 인간은 현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로 알게하는 수단이며,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의 中保者임을 가르친다. 칼빈이 인정하는대로, 성경은 자연이나 이성보다 월등한 조력자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지식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은 그것을 權威的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 받아들임의 행위는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성의 힘도 교회의 소리도 성경의 진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권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sup>3)</sup> 교회의 소리가 불충분한 이유는 교회 자체가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효과는 神的 著作權 인정 여하에 달려 있으며, 그러한 인정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sup>4)</sup>

성경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著者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칼빈은 이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이 교리의 저자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기 전에는 교리에 대한 신앙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sup>5)</sup>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것을 성경자체가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는 사실을 칼빈은 확신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저작임을 自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 대하여 말할때, 聖靈과 불가분리의 관계로 연결시킨다. 이미 우리가 말한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며, 앞으로 성령은 계속 그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3) *Inst.*, I. 8. 1. OS III. 71. 39-72 1-3.

4) G.S.Hendry, *The Holy Spirit in the Christian Theology*, p. 75f.

5) *Inst.*, I. 7. 4. OS III. 68. 28-30.

그러므로 성경의 自證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소생시키는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근거를 둔다.

성경은 그 起源으로 볼 때, 그리고 늘 살아서 신선하게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표현은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한다”는 표현과 동의어이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의 가장 거룩한 입을 여시는 것”이다.<sup>6)</sup>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확신한다.” 칼빈은 十誡命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로 하자”<sup>7)</sup> 이 고상한 확신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칼빈은 성경을 만들어 내는데 인간의 역할을 최소화 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저술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逐字的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특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神的 著作權의 문제는 자연적 방법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자연적 증명은 신앙을 위한 초자연적 기초대신 자연적 기초를 마련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세력도 성경의 신적 저작문제에 무엇을 가하거나 감할 수가 없었다. 성경은 수천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반복하였는데, 이것은 그 저자에 대한 경외와 순종을 명령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칼빈은 답변하기를, 하나님에 관한 충분한 지식은 인간의 마음 속에 심어져

6) *Inst.*, I. 6. 1.

7) *Inst.*, I. 7. 5. “ab ipsissimo Dei ore ad nos fluxisse”

8) *Inst.*, II. 8. 12. “nunc Deum ipsum audiamus loquentem Suis verbis.”

있어서 악인으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自然神學은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보충되고 명백해졌으며, 그 저자들은 “성령의 정확하고 진정한 필기자들”(Certi et authentici Spiritus sancti amanuenses)이었다.<sup>9)</sup>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을 충분히 알리셨다. 칼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자. 왜냐하면 힐러리(Hilary)가 말한대로,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한 유일하고 충분한 증거이시며,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알려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떠나 다른 곳에서 그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이해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 자신에게 맡기게 될 것이다.<sup>10)</sup>

여기서 우리는 학술적으로 종교개혁의 형식적 원리, 즉 오직 성경만이 사상과 생활의 규범이며 표준이라고 하는 그 고전적 진술을 만나게 된다. 칼빈은 성경의 充足性을 소극적 형식으로나 적극적 형식으로 반복해서 확인하였다. (1) 우리는 성경밖에서 신앙과 도덕의 안내를 찾아서는 안된다. (2)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성경으로 증명될 수 없는 신앙을 갖인다거나, 또는 성경으로 증명할 수 없되 그것을 확고히 붙잡지 못하는 것을 모두 “不敬虔”이라고 주장한다. 충족성의 원리는 신앙과 도덕과 의식, 심지어는 이들 세 범주 밖에 있는 것들에게도 적용된다. 칼빈의 神學作業은 이 원리에 맞게 충실히 수행되었다. 그는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할 때 자신이 영원히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자신의 다른 저작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식적 원리”의 기념비라고 할수 있는 기독교강요에서도 성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sup>11)</sup> 그러나

9) *Inst.*, IV. 8. 9. OS V. 141. 13.

10) *Inst.*, I. 13. 21. OS III. 136. 18-21

11) T.H.L.Parker.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p. 45.

“형식적 원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바른 신학적 사고의 기초가 될뿐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칼빈에 있어서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바른 신학적 사고는 하나님 지식의 일부이고, 하나님 지식은 바른 신학적 사고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 B. 聖經의 靈感

영감이란 성령께서 신구약 성경 저자들에게 행사하신 결정적인 감화를 의미하며 이 감화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정확하고 진정한 방법으로 선포하고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왔고,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그들의 저술한 성경을 경외하는 것이다.<sup>12)</sup>

칼빈은 물론 성경이 인간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주장하였다.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을 초월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인간의 사역을 통하여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위엄을 응시하는 것처럼 아주 확실하게 단정한다.”<sup>13)</sup> 성경저자들은 성령의 진정한 필기자이며,<sup>14)</sup> 그들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반드시 기록된 증거”<sup>15)</sup>로 남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순히 성령의 기구, 혹은 기관이며, 그들 자신에 대하여 말하되 오직 하늘에서 선포하도록 위탁된 것만을 말하였다.<sup>16)</sup> 그들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며,<sup>17)</sup> 그들의 文體는 성령의 문체이다.<sup>18)</sup>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12) *Com.* II *Tim.* 3:16; *Inst.*, I. 7. 1. OS III. 65. 11-16.

13) *Inst.*, I. 7. 5. OS III. 70. 24-26.

14) *Inst.*, IV. 8. 9. OS II. 141. 13.

15) *Inst.*, I. 6. 3.

16) *Com.* II *Tim.* 3:16.

17) *Com.* I *Pet.* 1:25.

18) *Inst.*, I. 7. 2. OS III. 73. 1-3.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로 하겠다”<sup>19)</sup>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말대로 성경은 전적으로 神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썩을 인간이 아니다.”<sup>20)</sup> 따라서 칼빈은 성경을 어디서나 인간의 말로 인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인용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을 비난하지 않고 공손하며 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sup>21)</sup>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학교이며, 여기서는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동시에, 유익한 지식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sup>22)</sup>

칼빈은 어디서나 성경 영감과 관련된 사역의 양식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논하지 않았다. 그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성경은 그 기원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는 점,<sup>23)</sup>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마치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이다.<sup>24)</sup> 칼빈은 엄격히 말해서 영감의 양식을 다소 口述(dictation)로 본 것 같다.<sup>25)</sup> “누구든지 성경에서도움을 얻고자 하면 먼저 율법과 선지자가 인간의 뜻에 따라 주어진 교리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다(구술)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sup>26)</sup> “그러나 이 용어가 비유적인 것으로 주장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칼빈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영감의 양식이 口述이라고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영감의 결과가 마치 구술에 의한 것처럼 인간적인 모든 요소와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19) *Inst.*, II. 8. 12. OS III. 354. 10.

20) *Com.* II *Pet.* 1 : 20.

21) *Inst.*, I. 18. 4. OS III. 227. 27-30.

22) *Inst.*, III. 21. 3. OS IV. 372. 1-2.

23) *Inst.*, I. 6. 1-3.

24) *Inst.*, I. 7. 1. OS III. 65. 14-16.

25) B.B.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p. 62.

26) *Com.* II *Tim.* 3-16 ; Also cf. I. 6. 2 ; IV. 8. 9.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이다.”<sup>27)</sup> 하나님의 선택되고 임명된 성경저자들은 보다 고상하게 고무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照明에 의하여 그들의 자연적 정신기능의 활동이 증진되었다. 그들은 계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그 계시를 더욱 충실히 전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임명된 기관들이었으나 神的思想의 이성적인 기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 의지를 완전 순종하는데 口述에 예속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으로 활동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중요한 것은 성경은 “문자적” 혹은 “비유적” 구술에 의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原本에서 오류없는 文書라는 점이다.<sup>28)</sup>

사람들은 칼빈에게서 성경영감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견해를 보게 된다. 두메르그(Emil Doumergue)는 칼빈이 기계적 또는 축자적 영감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다만 성경이 성령에 의하여 영감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그것은 신앙문제와 관계 된다고 가르쳤을 뿐이라고 한다.<sup>29)</sup> 헵페(Heppe)는 주장하기를, 칼빈은 많은 계시와 말씀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聖子에게서 선포된 말씀과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구별지었다고 한다. 칼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은 전자(하나님의 말씀)와 관계된 것이요, 하나님 계시의 씌어진 기록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헵페에 의하면, 성경의 권위는 씌어진 기록의 형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교리, 계시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믿을만한 증거도 있으나 잘못된 증거도 있다고 한다.<sup>30)</sup> 니젤(Wilhelm Niesel)도 역시 칼빈은 문자적(축자적) 영감교리를 믿지 않았다고 단정한다.<sup>31)</sup>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칼빈이 성경영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27) Warfield, *op. cit.*, p. 63.

28) E.A.Dowey, jr.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p. 101.

29) *Jean Calvin*, IV. 76ff.

30) *Dogmatik der Evangelischen-reformierten Kirche.* pp. 16f.

31) *Theology of Calvin.* p. 31.

가지고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모세 5경 주석 서론에서 “모세는 여기서 자신의 예언을 말하지 않고, 다만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공표하는데 성령의 기구일 뿐이었다”고 하였다.<sup>32)</sup> 예레미아가 이전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으로 하여금 받아쓰게 한 사실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시 선지자가 전해 받은 말씀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신 것이 틀림없다. 이는 우리들도 이전에 전해들은 말을 항상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많은 예언의 말씀이 사라졌을 것이다. 예레미아는 말하자면 하나님과 바룩사이에서 있었다. 하나님은 영으로써 선지자의 마음과 입을 주관하셨다.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인도되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말했으며, 그리고 유다백성에게 선포했던 그 예언의 전부를 바룩이 받아 씌으로써 기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sup>33)</sup> 우리는 칼빈의 시편주석에서 자주 성령께서 이 시들을 받아쓰게 하셨다는 말을 읽게 된다.<sup>34)</sup> 그는 공관복음서 주석 서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가가는 베드로와 가까운 제자인데 베드로가 불러주는 그대로, 곧 필기자로서 이 복음을 받아 썼다고 믿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증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령의 지시가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sup>35)</sup> 칼빈은 또한 요한복음서 주석 서문(주제)에서, “성령께서는 네 명의 복음서 기자들에게 각각 쓸 부분을 받아 쓰게 하심으로 전체가 하나의 완전한 형체로 정리되었다”고 하였다.<sup>36)</sup> 성령의 영감에는 이렇게 그 의미와 전달방법, 심지어는 복음서 기자들의 언어와

32) *Com. Gen. Vol. I. p. 58.*

33) *Com. Jer. 36 : 4-6.*

34) *Com. Psalms 69 : 22 ; 137 : 9.*

35) *Argument to com. Harmony of Gospels, Vol. I. p. 38.*

36) *Com. John, Part I. p. 6.*

문체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칼빈은 마태복음 2 : 1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복음서기자들을 기록자로 임명한 하나님의 靈은 계획적으로 그들의 문체를 통제하셔서 모두가 그 방법은 다르지만 완전히 일치하게 글을 쓰도록 하셨다.” 베드로는 오순절 앞서 있었던 군중집회에서, 성령께서 유다의 배신을 예고 하셨다고 하였다. 칼빈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다윗이나 모든 예언자들이 성령의 지도가 아니고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러한 표현은 성경의 권위를 보다 크게 높혀 준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언의 저자가 아니라, 그 저자는 바로 그들의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신 성령인 것이다.”<sup>37)</sup>

이러한 증거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언어와 문체와 용어를 포함하여 성경전체의 저자가 바로 성령임을 주장한 칼빈의 사상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성령의 영감은 영적교리와 주요한 구원론적 진리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교리에도 미친다. 성경의 저자들은 자주 받아쓰게 한 것을 정확히 재현시키는 성령의 비서, 서기, 필기자 또는 붓이라고 언급된다.

칼빈의 성경영감에 관한 견해는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어거스틴의 사상과 일치한다.<sup>38)</sup> 그들은 다같이 부분적 영감의 개념을 부정하였으며, 성경저자들의 성령에 대한 절대적 의존을 강한 어조로 표현하였다. 제베르크(R. Seeberg),<sup>39)</sup> 릿츨(O. Ritschl),<sup>40)</sup> 그리고 헌터(A. M. Hunter)<sup>41)</sup>는 칼빈이 口述說의 입장을 견지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에 가까우나, 그러나 칼빈 자신의 명료성 혹은 변화의 어떤 결여를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워필드의 해석이 아마 최상의 설명이 될 것이다. 워필드에 의하면 口述(Dictation)은 “영감의 양식이라기

37) *Com. Acts 1 : 16.*

38) J.T.Hoogstra, ed., *John Calvin : Contemporary Prophet.* p. 100.

39) *Lehrbuch der Dogmengeschichte.* pp. 566-569.

40) *Dogmengeschichte des Protestantismus,* pp. 63.

41) *The Teaching of Calvin,* pp. 68ff.

보다는 영감의 결과이다.”<sup>42)</sup>

칼빈이 생각한 성경은 이런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필기자들에게 받아쓰게 하여 공적인 기록으로 남게 한 66권의 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자신에 관한 영원한 특별계시이다. 그런데 이 특별계시는, 사역과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알리셨으나,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무능력 때문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 일반계시를 보충, 혹은 교체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이것이 성경의 기원을 설명하는 근거이며, 또한 세상에서 역할하는 성경의 기능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나님이 모든 눈앞에 보여주시는 일반계시에서 인간이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죄로 말미암은 우둔함 때문이며,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핑계도 할 수 없게 되었다.<sup>43)</sup> 한편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자신과 더 가깝고 더 친밀하게 모으고자 하셨던 자들”에게 공개적인 언어로 특별계시를 주셨다.<sup>44)</sup>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얼마나 심하게 각종 오류에 기울어지고 있으며, 얼마나 맹렬하게 신기하고 인위적인 종교를 날조하려는 욕망을 계속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그 天的인 교리가 망각되지 아니하고, 오류도 소실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방자한 행동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된 증거로 남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sup>45)</sup>

그러므로 칼빈의 견해에 있어서 성경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자신의 특별계시의 문서이다.<sup>46)</sup>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보호를 받은 문서이며, 그러므로 문서의 형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계시이다.<sup>47)</sup> 계시의 成文化의 필요성은

42) Warfield, *op. cit.*, p. 64.

43) *Inst.*, I. 6. 1. OS III. 60.11-14.

44) *Ibid.* OS III. 60. 17-19.

45) *Inst.*, I. 6. 3. OS III. 63. 15-20.

46) *Inst.*, I. 6. 1. OS III. 60. 17-18.

47) *Inst.*, I. 6. 2. 3.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이 멀어진데서 기인한다. 우리는 특별계시, 즉 성문화된대로의 성경을 정확히 말해서 치유로서가 아니라, 일반계시에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둔해진 인간에게 助力者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성문화된 특별계시로의 성경의 기능은 영적으로 둔해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靈的 眼鏡의 역할을 하는데 있다.<sup>48)</sup>

### C. 聖靈의 內的 證據

칼빈은 기독교신앙의 인식론은 중세교회의 권위적 전통이나 再洗禮派의 靈性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權威는 인간의 마음에서 성경진리를 입증하시는 성령의 증거라고 그는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적 증거(*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라고 표현하였다. 칼빈은 이러한 입장을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하였으며, 그 후 계속해서 주석과 설교에서도 설명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기독교 강요에서 사용한 이 표현은 프로테스탄트 신학적 구조의 표준이 되었다.

칼빈이 주장하는 성령의 증거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계시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성경의 신빙성 문제에 더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교리의 저자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기 전에는 교리에 대한 신앙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sup>49)</sup>고 하였다. 칼빈의 이러한 주장은 로마교회와 논쟁상태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주장이었다. 로마교회는 오직 교회만이 성경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성경의 神的 著作임에 대한 성령의 증거 교리는 칼빈의 다른 교리와는 관계가 없으나, 그러나 칼빈과는 단절될 수 없는 교

48) *Inst.*, I. 6. 1. OS III. 60. 23-30.

49) *Inst.*, I. 7. 4. OS III. 68. 28-30.

리이다. 그것은 일반적 신앙교리의 한 적용일 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印쳐 주시지 않는 한, 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일반적 교리의 한 적용인 것이다.

칼빈이 마음에 특별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참신앙”이다. 그는 여기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는다. 만일 그가 묻는 질문이 그것이였다면, 아마 그는 서슴치 않고 교회의 증거가 결정적인 것이라고 답변했을 것이다. 그는 교회가 성경에게 권위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神的起源을 확립함에 있어서 “교회의 일반적 판단”<sup>50)</sup>을 매우 중요한 논증으로, 그리고 “교회의 동의”<sup>51)</sup>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 볼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만일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문제라면, 아마 칼빈은 합리적 논증을 통해 철저히 증명했을 것이다. 그는 이 논증을 위해 한 장 전체를 할애하였다.<sup>52)</sup> 그러나 그것이 증인의 결정적 증거이든, 이성적 고찰을 통해 얻은 압도적 증거이든, 남을 수긍시키지 못하는 객관적 증명은 “참신앙”을 산출해 낼 수 없다고 칼빈은 주장하였다. 그리고 칼빈이 생각하고 있던 “참신앙”은 성경의 증거 교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자연계시의 무능함에 따라 하나님 지식의 예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選擇者만을 위한 것이다.<sup>53)</sup> 좀 더 충분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가깝고 더 친밀하게 모으고자 하셨던 자들”<sup>54)</sup> 또는 “하나님이 유익한 교훈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모든 사람들”<sup>55)</sup>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칼빈은 좀 더 명백하게 성경의 증거를 “하나님이 선민에게만, 곧 온 인류 가운데서 구별해 내신 자들에게만 이 귀중한 특권”<sup>56)</sup>을 주시는 행

50) *Inst.*, I. 7. 3. OS III. 68. 20. “universale Ecclesiae iudicium”

51) *Inst.*, I. 8. 12. OS III. 80. 20. “Ecclesiae consensus”

52) *Inst.*, I. 8.

53) *Inst.*, I. 6. 1. OS III. 61. 3.

54) *Ibid.* OS III. 60. 18-19.

55) *Inst.*, I. 6. 3. OS III. 63. 21-22.

56) *Inst.*, I. 7. 5. OS III. 71. 19-21.

위라고 말한다. 이 귀중한 특권은 “구원하는 신앙”이며, 칼빈은 그것을 “참 신앙”<sup>57)</sup>이라고 부른다. 그는 또한 구원하는 신앙을 “바른 신앙”<sup>58)</sup>, “확고한 신앙”<sup>59)</sup>, “경건한 자의 신앙”<sup>60)</sup>, “경건한 자의 확실성”<sup>61)</sup>, “참된 경건에 본질적인 확실성”<sup>62)</sup>, “구원하는 지식”<sup>63)</sup>, 그리고 “영생의 확신”<sup>64)</sup>이라고 한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바른 신앙”으로, 즉 “참된 경건에 본질적 확실성”을 갖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sup>65)</sup>

칼빈은 그것을 영혼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밀한”<sup>66)</sup>, “내적”<sup>67)</sup>, 또는 “내부적”<sup>68)</sup> 행위라고 말하고, 성령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우침을 받아”<sup>69)</sup>, 하나님의 책으로서의 성경의 진정한 특성을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 대한 전적인 默從”을 받게 하는 성령의 “내적 가르침”이라 하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향해 自證 하게 되는 것이다.<sup>70)</sup> 우리는 또한 이것을 가리켜 “성경의 은밀한 증거”라고도 한다. 이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모든 이론을 훨씬 능가하며,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sup>71)</sup> 정확히 말해서 영혼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은밀한 내적 사역으로 생기는 것은 새로운 영적 자각인데,<sup>72)</sup> 이 자각으로 인해서 성경의 神的 著作

57) *Ibid.*, OS III. 71. 16.

58) *Inst.*, I. 7. 4. OS III. 69. 25.

59) *Inst.*, I. 8. 3.

60) *Inst.*, I. 7. 3. OS III. 67. 23.

61) *Ibid.*, OS III. 68. 11.

62) *Inst.*, I. 7. 4. OS III. 70. 14.

63) *Inst.*, I. 8. 13. OS III. 81. 4.

64) *Inst.*, I. 7. 1. OS III. 66. 9.

65) *Inst.*, I. 7. 4. OS III. 70. 14.

66) *Ibid.*, OS III. 69. 11. “arcano”

67) *Inst.*, I. 7. 4; 8. 13.

68) *Inst.*, I. 7. 5. OS III. 70. 16. “intus”

69) *Inst.*, I. 7. 3. 4. 5.

70) *Inst.*, I. 7. 5.

71) *Inst.*, I. 7. 4.

72) *Inst.*, I. 7. 5.



임을 직관적 자각에 의해서 아는 것처럼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진리의 명백한 증거를, 마치 흰 것과 검은 것이 그 색깔이 다르듯이, 또한 단 것과 쓴 것이 그 맛이 다르듯이 분명하게 나타낸다.<sup>73)</sup>

이론이나 증명, 또는 인간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결론은 어떠한 것도 명료성에 있어서나 그 효과에 있어서 그러한 확신과는 비교될 수 없다. 이 확신을 직각적이며 직접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신적 특성을 인정하게 하는 그 영적 자각의 역사를 마음에서 일으키는 성령에 그 궁극적 근거를 두고 인정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직관에 의하여 인간의 모든 판단을 초월하는 확실성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칼빈은 아주 명백하게 이 직각적 확신을 다음과 같이 생생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 이론도 필요로 하지 않는 확신이다. 곧 이것은 최고이성으로 말미암아 입증된 지식이며, 실로 이 지식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이론에서보다 안심하고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계시가 아니면 만들어 낼 수 없는 감정이기도 한다.<sup>74)</sup>

이 확신의 상태는 논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각에 의해서 얻게 된다. 말하자면, 그것은 지식, 즉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이성에 의해서 도달할 수 없는 확신인 최고의 이성과 일치한 직각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로서만 주어지는 의식이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의 창조적 행위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심어지고 그 판단도 역시 직접적이며 결정적이다. 즉 영적인간은 모든 것을 분별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것이 바로 칼빈의 유명한 성령의 증거 교리이다.

73) *Inst.*, I. 7. 2. OS III. 67. 6-7.

74) *Inst.*, I. 7. 5. OS III. 71. 8-13.

칼빈은 제세페파와의 논쟁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증거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sup>75)</sup> 그가 만일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의 증거없이 아무런 효과도 나타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성령의 증거 역시 말씀에서 구체화된 하나님의 계시없이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것이다.<sup>76)</sup> 진리의 지식에 관한 한, 우리는 말씀없이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처럼, 성령없이도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와 관계된 성령의 전체기능은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된 말씀을 효과적으로 확증하고, 우리 마음에 그것을 이해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다.<sup>77)</sup> 칼빈은 이것을 기독교강요 제 1권 9장 3절에서 아주 명백하게 실례를 들어 교육적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칼빈은, 성령의 증거를 새로운 계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사역은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계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시와의 관계에서만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임을 아주 명백히 하였다.

칼빈의 공식은 “말씀”과 “성령”이다. 이 용어들은 칼빈의 특별계시 교리의 중심을 이루는 말들이다.

말씀 자체가 성령의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에게 큰 확실성을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일종의 상호결속 관계를 통하여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결합시켰으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머물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의 형상을 따라, 곧 그 말씀을 따라 그를 인식할 때에 우리는 속는다는 두려움 없이 성령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 때문이다.<sup>78)</sup>

말씀과 성령이 결합할때에만 죄로 어두어진 인간의 마음에

75) *Inst.*, I. 10.

76) *Inst.*, I. 9. 3.

77) *Ibid.*

78) *Inst.*, I. 9. 3. OS III. 84. 13-20.

게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말씀은 객관적 요소를 공급하고, 성령은 주관적 요소를 공급한다. 즉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연합할 때에만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 전체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주 주관적 능력은 성령의 의지이다. 이 둘의 합칠 때 지식은 인간에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확실해진다.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 지식을 위한 준비를 말씀의 객관적 계시와 성령의 주관적 증거에서 찾았는데, 이 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택함받은 그의 백성들, 즉 “그가 유익한 교훈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모든 사람들”<sup>79)</sup>을 위하여 정하셨다.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말 속에는 칼빈주의 적 “은혜의 수단” 교리의 근본적 공식이 들어 있다. 말씀의 기능은 믿어야 할 대상을 영혼앞에 제시하는 일이다. 그리고 성령의 기능은 이 대상에 대한 믿음을 영혼 안에서 소생시키는 일이다. 각자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 할 때, 타자의 기능을 소홀히 하게 되면 아무 일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 D. 聖靈의 證據와 그리스도인의 內的經驗

칼빈은 여기서 성경에 대한 성령의 증거만을 말하거나, 또는 그것을 따로 분리시켜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후에 복음의 구원적 내용에서 신앙을 다루면서 이 문제로 돌아오는데, 그는 이 때 성령께서 말씀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인쳐주신다고 주장한다.<sup>80)</sup> 그는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선택의 확신을 위하여 그러한 영적증거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의 독특한 사역을 믿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한 칼빈에게 있어서 그 표어는 자연히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의 思考의 지평은 의무의식과 율법적 근심으로 가득 채워진다. 성령으로

79) *Inst.*, I. 6. 3. *OS* III. 63. 22-23.

80) *Inst.*, III. 11.

말미암아 갱신되고,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성장하게 되는 의무의식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신대로 하나님의 집의 율법에 따라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할 의무를 칼빈이 특별히 강조한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었다.

한편 루터는 그리스도인 自由를 더 한층 강조하여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에서 해방시킨다. 우리는 여기서 신교의 이 두 유형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된다. 이로 인하여 개혁파는 항상 사상과 실제에서 강한 윤리적 경향을 지니는 것이 그 특징으로 되어왔다. 칼빈이 성경을 하나님의 책으로 인정하고,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중심에서 받아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은혜로 그 마음에서 역사하시어, 그 마음을 갱신시켜 영적생활로 인도하신 결과 중의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칼빈이 이것을 마음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창조적 사역의 최초의 결과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새로 갱신된 영혼의 최초의 활동으로 생각했는지는 구별지를 필요가 있다. 만일 이 최초라는 말을 논리적인 최초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역시 긍정적으로 답변해야 할 것이다. 칼빈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영혼으로 인도하는 기구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굳게 존경하고 성령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또 유효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될 때에만,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맞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배우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에 대한 최소한의 참되고 바른 지식을 가질수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sup>81)</sup>

이러한 의미에서 칼빈이 명확하게 말할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경을 믿는다고 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에 대한

81) Cf. I. 9. 3; I. 6. 2.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강요는 자연히 그 절정으로 생각되는 믿음 즉,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시작한다. 칼빈은 신앙배후에 마음을 향해 일하시는 성령의 창조적 사역이 있음을 보고, 이 창조적 사역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생기며, 그 행위가 바로 신앙이라고 한다.

인간생활에 나타나는 선한 것들은 모두가 다 초자연적 기원을 가진다는 것은 칼빈사상을 특징짓고 있는 그의 심원한 의식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행위는 신자 자신의 행위이며, 또한 그 가장 깊은 내부의 자각의 표현이라는데, 칼빈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 자각 자체는 성령의 창조적 행위의 표현이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는 신앙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성령의 증거”에 근거를 두고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초자연적 근거는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이었다. 칼빈사상의 중심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神的 起源과 그 권위를 신뢰하고, 성경내용의 계시적 성질은 특수하게 초자연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저술된 책이라는 그것이다. 성령의 증거는 우리의 자각의 형식을 통하여 전달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증거이며, 우리 자각의 증거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칼빈은 이중증거 즉, 우리 자신의 자각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가 있음을 전적으로 확신하였다.<sup>82)</sup> 동시에 그는 이 둘을 구별하면서도 분리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개념에 있어서 이 이중증거는 둘이 하나로 합류하여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을 성령의 증거가 제안된 계시(propositional revelation)로 주어지거나, 맹목적인 확신을 우리 안에서 창조함으로써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식에 일치하게 주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의 증거는 우리의 의식과 연합하여 일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달리 의식한다. 즉 우리는 전에는

82) *Com.Rom.* 8 : 16.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인정하며, 전에는 두려워하고 증오하던 하나님을 지금은 신뢰하고 사랑한다. 전에는 무관심하게 외면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확고하게 받아 드린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우리 마음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증거”라고 부른다. 칼빈에 있어서 이 증거는 사람의 마음에서 친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열어 진리의 빛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명의 역사를 통하여 마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인정한다.

성령의 증거 교리는 칼빈의 하나님 지식 교리의 요지이다. 인간은 본래 지을수 없는 神意識을 부여 받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퍼져있으며, 하나님의 행위에서 구체화된 하나님의 부요한 계시로 말미암아 지식을 얻을수 있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었으나, 마음의 부패로 인하여 하나님에 관해 건전한 지식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의 부패는 하나님에 대한 즉각적 의식을 둔하게 하고, 사역과 행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말씀의 객관적 계시로 간섭하시고, 주관적으로는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죄로 자라난 우둔함을 바로 잡아 주셨다. 이것을 가리켜 칼빈은 성령의 증거라고 부른다. 분명히 성령의 이 증거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사역에서이든 말씀에서이든, 하나님의 계시는 유효하게 된다.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시어, 그가 가르치신대로만 그를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이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아는 하나님 지식은 또한 신빙할만한 것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은 하나님 자신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전한 지식이다. 칼빈은 여기에다 신학적 구조의 기초를 놓았다.

그러나 이와같은 강한 진술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사역과 행위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반계시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칼빈은 自然神學의 가능성을 부정하려 하지 않는다.<sup>83)</sup> 물론 그는 “자연인”에 의해, 즉 성령에 의하여 그 마음이 열리지 않은 인간, 성령의 증거의 감화 아래 있지 않은 바로 그 자연인에 의해 어떠한 신학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그는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문제의 그 강한 진술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계시에서는 아무 것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밖에서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초자연계시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른 신학의 전체문제는 객관적으로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칼빈의 전체논의가 의도하고 있는 주요 결과이다. 신교는 종교개혁의 “공식원리”인 하나님 지식의 유일한 권위적 근거를 성경이라고 가정한다. 더욱 근본적인 가정은 이 성경이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계시로 간주되며, 이 증거없이 우리 앞에 무력하고 우리 마음에 아무런 효과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성령의 증거가 있을 때, 성경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 지식의 생명을 주는 출처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참된 프로테스탄트의 원리가 구체화 되어 있다. 그것은 영혼을 교회의 손과 그 지배에서 완전히, 그리고 힘있게 해방시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겨 주었다. “마음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대하여” 이 말에서 우리는 칼빈의 교리적 공식의 역사적 중요성을 보게 된다.

83) Cf. I. 5.

## 존 코튼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

오 덕 교

〈부교수·역사신학〉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철장을 가지고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천년왕국에 대한 신앙은 요한 계시록 20장에 근거한다.<sup>1)</sup>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파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지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후에는 반드시 놓이리라”(계시록 20:2-3). 뉴잉글랜드에 언덕 위의 도시를 건설코자 하였던 청교도 가운데 한사람이었던 존 코튼은 이 예언들이 바로 천년왕국의 시작과 성격을 규정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에게 이 예언이

1) 교회의 부활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도들과 함께 천년동안 다스릴 것이라는 코튼의 신앙은 그의 말년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의 말년에 천년왕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영국에서 1640년경부터 1650년경에 이르러 성도들이 더 많은 권세를 잡게 되자, 천년왕국에 대한 그의 신앙은 더욱 강화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649년의 찰스 1세의 처형을 축하하는 설교이다. 찰스 1세가 사형에 집행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이 감사예배를 드릴 때, 코튼은 요한 계시록 15:3을 본문으로하여 찰스 1세의 처형은 정당하며 이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성큼 다가 오고 있다고 설교하였다(Cotton [1649] 1980, 110-124).